

# 당-청 '연말 진용 개편론' 불협화음?

## 홍준표 원내대표 "적절한 인재 재배치해야" 개각 압박 李 대통령, 개각·靑 개편론 보도에 "왜 자꾸..." 불쾌감

한나라당 내부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진용 재배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조직 개편과 조기 개각 등을 놓고 당에서는 '압박'하고 청와대는 '부인'하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여권 내의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MBC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 진용의 인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이제 인재풀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청와대나 내각 등 모든 정부기관에 적절한 인재 재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재배치론의 배경과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나가서 바람에 청와대나 내각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서 "총선도 끝났고 1년이 지나면서 인재풀도 많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인재 재배치를 할 때는 과거를 따지지 말고 소신과 도덕성,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기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권에서 봉직했던 사람이라도 적극 기용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경제수장감으로 김대중 정부에 몸담았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석동 농촌경제연구소 대표를 꼽은 바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 출연, "대통령도 '지금은 비상사국이라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경제난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인사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와 내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어 "청와대 참모들도 이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각 구성"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이 비상사국인 만큼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전 정부 사람이든 다른 계파 사람이든 평판이나 능력을 보고 모셔야 한다"고 '탕평인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기 개각 및 청와대 개편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개각 및 청와대 개편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 '왜 자꾸 이런 게 (언론에) 나가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관련 보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청와대 내부에서 인적쇄신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난극복을 위해 국력을 총집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檢 노건평씨 소유 '정원 토건' 압수수색

## 1시간만에 서류가방 6개 압수... 회삐돈 횡령·탈세 의혹 수사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66)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정원토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9일 오후 2시15분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정원토건 사무실에 대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수사관 5명이 도착, 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수사관들은 도착 직후 정원토건 사무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가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한 채 건평 씨의 세종증권 로비와 정원토건의 회삐돈 횡령 혐의 등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훑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원토건의 대표이사 조모(58) 씨를 상대로 건평 씨가 회삐돈을 횡령하거나 탈세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수사관들은 정원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만인 이날 오후 3시15분경 정원토건 사무실을 나섰으나 압수물을 담은 상자는 없었으며 수사관 3명이 관련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서류가방 6개를 양쪽 어깨에 메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직후 어떤 서류를 압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봉하마을의 건평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말하고 25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사라졌다.

앞서 이들 수사관들 일부는 정원토건 사무실 인근에 있는 대표이사 조모 씨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토건은 지난 1999년 토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3개의 건설면허로 설립된 뒤 그동안 면허 갱신과 폐업, 반납 등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검찰 관계자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정원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회사를 나서고 있다. 정원토건은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구속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 靑 "공기업, 획일화된 구조조정 아니다"

## 10% 감원은 잠정적 목표... 개혁의 중심은 '효율화'

청와대는 9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인력을 무조건 10% 감축하는 방식의 획일화된 구조조정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15% 인력감축 등을 골자로 한 한 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범 사례라고 칭찬한 것이 반드시 농촌공사처럼 인력을 대폭 줄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공기업

선진화는 전체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10% 향상시키자는 것이지 무조건 인력부터 자르고 보자는 식의 과거 방식은 아니다"면서 "일부 공기업에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특히 "모든 공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나무 종류에도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의 경우 낙엽을 안 떨어

뜨리듯 공기업도 인력을 감축해야 할 곳과 그럴 필요없이 다른 방식으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구조조정'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전날 조계사 특강에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인력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꼭 인력을 줄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방식의 경영효율화 방안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인력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10% 경영효율화 목표 달성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된 자산 매각, 연봉제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고임금제도 손질, 내부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아웃소싱, 분사화 등을 통해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기업별로 어떤 식의 구조조정 방안이 좋은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사정에 맞는 일종의 맞춤형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 FTA 연말 임시국회 처리 강행하나

여야 협의 강조... 野 반발 고심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연말 임시국회 처리라는 목표를 잡아놓고 연말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자유선진당에서 내놓은 보완책을 검토중이며, 농수산물품 위도 12일 농민단체와 보완책을 논의

있지만 처리 시한을 못박고 있다는 점에서 대야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용을 보완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연말 임시국회 처리 공표 자체가 야당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조성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비준시기는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목표한 안내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목표한 안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목표한 안내

2009학년도 중국어로 대학가기

중국 영문대학 입학반 모집

목경대 청화대 입시준비반

한국외국어대학 FLEX 준비반

국내대학 중국어 수시 준비반

www.littlechina.co.kr